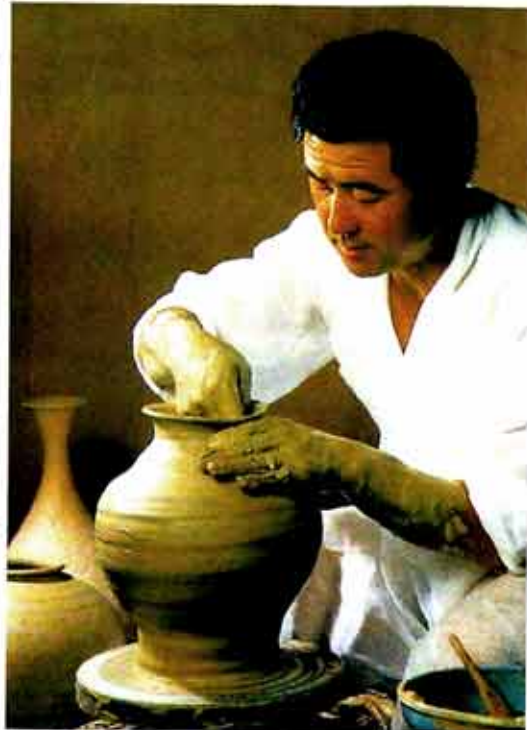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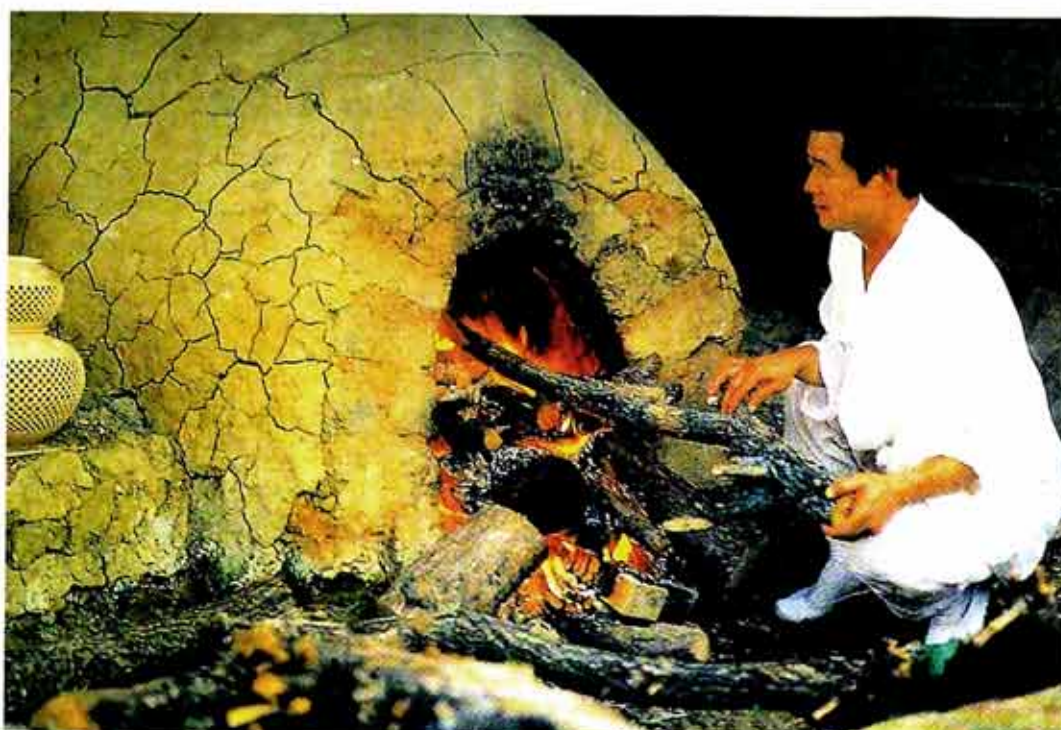


인터넷 전자신문 판매처로 http://news.buddhapia.com

土種 홍화씨
興國農産 興國農産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계 품내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 고려청자의 대표적 생산지였던 강진지역의 독특한 청자
를 6백년만에 재현한 윤도현씨.



◇ 가마에 넣은 뒤 6백7십일간의 청성을 들여 구워내는 청자는 청성과 기도로 빚어진 결정체이다. 실금없는 것이 특징인 강진청자는 24
단계 70일의 제작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윤도현씨는 비색 고려청자 재현을 화두로 30년간 뜨거운 가마의 씨름해 왔다.



◇ 7세기 후반 마애불의 특징을 잘 나타내
고 있는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마애불을 찾아서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원래 감실안 조성...현재는 노출
도드락 새김으로 위엄스런 모습

경북 봉화군 돌이면 북지리에 있는 이 불상은 원래 감실안의 본존불로 조성된 보기드문 신라 시대 거대 마애불좌상이다. 현재 감실의 돌벽도 무너졌고 불상에도 군데군데 탈락이 있지만 거의 원형에 가깝게 높은 도드락새김으로 새겼기 때문에 위엄스런 모습이 더욱 돋보이고 있다. 네모진 얼굴에 내면적인 힘과 고졸한 미소를 은근히 나타내고 있는 점이나 오른 손을 가슴에 들어 시무외인을 하고 왼손은 무릎에 내려 여인을 지고있는 특이한 두 손은 이 불상의 적정한 위용을 한결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넓은 무릎과 무릎을 덮어내린 옷자락의 소박한 상형과 불상주위에 새긴 옛스러운 화불들과 함께 7세기 전반기의 삼국시대 불상양식을 나타내고 있지만 얼굴이나 체구에 표현된 부드러운 조소력 때문에 실 제작년대는 7세기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보 201호.
글·사진=불자포교사자연합회 (011-337-7312)

“정성 들인만큼 진품 탄생하죠”

신문박의 道 도가가 윤도현 씨

흙과 물과 불과 바람, 사대(四大)로 신비로운 비색을 연출하는 도가가 윤도현씨(58·강진도강요 대표).

“청자야말로 오직 청성과 기도로만 빚어진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망상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어딘가 흠결이 생깁니다. 오로지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청성을 쏟아 아 자연스럽게 흙이 갖든 멋진 작품이 탄생하는 겁니다. 가마에서 나온 청자를 보면 흙을 주무르고 불을 때면 나의 마음상태가 어찌됐는지 금방 나타납니다.”

비색 고려청자 재현을 화두로 삼고 30여년간 흙을 주물러온 윤도현씨는 청자 한조각 한조각에 혼을 쏟고 흙과 불, 송진내음의 기묘한 조화속에 탄생되는 비색청자를 얻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서 고려청자에 숨겨진 옛 도공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청자들은 맑은 청성의 결정체답게 비취색이 아름답고 형태가 단정하며 다양한 문양이 장식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윤씨는 도예를 ‘마음을 빚는 일’이라고 말한다. 수없이 흙을 반죽하고 물레를 돌리고 형태를 다듬어 유약을 칠하고 가마에서 굽는 일을 반복하지만 그 옛날 고려도공이 굽던 비취색 청자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가마에서 나온 청자가운데 70% 이상이 깨부수어 버려진다. 어느 때는 2시간이 넘도록 청자를 깨버릴 때도 있다. 그러나 미련은 없다. 또다시 청자를 굽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 ‘원벽재현’을 위한 그의 고단한 여정은 되풀이되는 것이다.

그는 법칙을 떠나 아다를 갈 때나 심지어는 화장실에서조차 늘 ‘청자’를 화두로 생각한다. “아직 어설퍼도 다 공부할 해야 합니다. 내가 청자를 만든다는 느낌보다 나와 청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무심으로 빚어지고 구어질때 마음에 드는 진품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윤도현씨는 우리나라 국보·보물급 청자의 80% 이상을 생산했던 강진요를 다시 재현했다. 강진 고려청자의 특징인 빙철(실금)이 없고, 고유색인 비취색도 거의 재현해내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 고려청자의 발상지로 알려진 정수사는 옛도공들의 기도처이자 정신적 귀의처였다.

1965년 조선대 약대를 졸업하고 고향인 칠량면에서 약국을 경영하던 윤씨는 강진 도예지 지역당사와 학술발표회 등을 빠짐없이 찾아다녔다. 특히 73년부터 시작된 강진지역 고려청자 가마터 발굴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가 살던 강진은 고려청자의 발상지로 9세기 통일신라시대부터 14세기 고려시대까지 약 5백년간 청자를 생산한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이 일대는 총 188기의 청자가마터가 원형으로 보존되어 있었지만 6백년간 단절된 고려청자의 재현은 요원했다. 그러던중 윤씨는 전남 도예연구소와 전남 도예협회에 근무하며 당시 이용희 청자연구소장에게 청자에 대한 교유를 받게 된다. 그는 청자에 대한 관심에서 제작으로 자연스럽게 발터드는 계기가 됐다.

고려청자 재현 30년 화두 빛고 굽고 깨부수기 반복 “도예는 마음공부의 결정체”

그는 몇년간 결방을 매고 강진청자와 다른 지역 청자가 다른 점에 대한 의문으로 전국의 도요지와 도예가들을 찾아다니며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는 여행을 다녔다. 강진 청자의 특징인 실금없는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청자토를 채취하고 점토기법으로 24단계 70일의 제작과정을 거쳤다. 전통적인 강진청자 제작과정인 수비(원료혼합하기), 연토(반죽하기), 성형(형태만들기), 시문(문양넣기), 초벌구이(800도), 시유(유약바르기), 재벌구이(1300도)를 그대로 했지만 이유없는 실패는 몇년간 계속됐다. 집안에서도 모두들 말렸지만 윤씨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다. 그러던중 실금이 생기는 요인을 알게 됐다. 청자에 흙과 유약을 발라 열을 가하면 가마안에서 광창하고 수축하는데 그 과정에



◇ 불심으로 빚은 청자 불상과 나한상들.

서 흙과 유약의 비율이 다를 경우 금이 간다는 사실을 비로소 터득하게 된 것이다.

“청자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수행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안에 불성이 내재되어 무명에서 벗어있지만 닦을수록 빛을 발하는 것처럼 점토속에 불성이 들어 있어 흙자체에서 비색으로 발색되고 오랜 세월이 가면 색이 차츰 없어져 천년정도 지나면 현재의 고려청자와 같은 순백하고 아름다운 색깔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는 78년부터 본격적으로 칠량면에 도강요를 설치하고 고려청자 재현에 앞장섰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뜻에 동참하여 도반이 됐다. 그들에게 제작비법을 전수하는 것은 물론 길을 열어주는 것도 내일처럼 이기지 않았다.

또한 고려청자 단지와 강진청자문화재 개회도 제시, 2년전 옮겨진 대구면 정수사에서 사당리일대 18만여평에 강진청자 10명의 도예가들이 단지를 만들어 입주했다. 이곳에는 강진도자기사업소를 비롯하여 청자자료박물관, 민속옹기전시장, 청자빛기체험장, 청자전시관매

장점이 들어섰으며 청자와 연계한 2만3천평의 국민관광테마단지가 인근에 개발되고 있다.

백년사 거사림의 활동을 하고 있는 윤도현씨는 최근 몇년동안 청자대불과 청자기와의 재현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청자의 신비로운 색과 어울리는 자비로운 상호를 만들기 위해 그는 해남불교대학에서 공부했으며 올해 불교공부를 더하기 위해 강진불교대학에 입학했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포대화상 나한상 등 청자소불에 관심을 갖고 각고의 노력으로 완성하여 사찰에 모신 윤씨는 올해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석가모니 대불은 3자크기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특수기와의 청색물감을 바른 기와를 올린 청와대보다도 나은 자연유약을 바른 청자기와를 법당에 올리는 것을 염원으로 하고 있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윤씨는 장흥 천관사 대웅전에 청자기와의를 올릴 예정이다. 옛 선인들이 청자기와의를 대웅전담뎡 끝부분에 올려 버리를 막았다는 사실에 착안해 청자기와의 기막을 형성해 빛깔의 침투를 막고 1200도의 열을 이겨내며 몇천년이 가도 견딜 수 있다며 불자들이 참배하는 부처님 성전을 천년 비색의 청자로 장엄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한다는 윤도현씨는 또다시 뜨거운 가마와 씨름하는 6박 7일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김철우 기자 (wkim@buddhapia.com)

고려청자 발상지 강진 정수사

“고려청자의 발상지는 정수사입니다. 9세기 정수사에서부터 시작된 가마터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밑으로 내려온 것이죠. 현재의 도예단지 위치는 12세기 융성하던 터지요”

강진군고려청자사업소 최원태소장은 강진 천개산 정수사가 처음 청자를 만든 도공들의 기도처이자 정신적 귀의처였다고 말했다. 쌍계곡이 있어 원래 쌍계사로 불리왔다는 정수사는 남으로 비스듬히 구부러져 강진만으로 흘러가는 용문천의 발원지이다. 고려청자 가마터는 이 용문천을 따라 밀집해 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마터 4백가중 2백여기가 이곳에 밀집해 있다.

강진 고려청자는 정수사가 있는 용문천 상류 용문리에 초기 가마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시작으로 중류인 제물리에 중기 가마터, 하류에는 12세기경 고려청자를 꽃피웠던 사당리로 내려간 시대적 변천을 보여주고 있다. 정수사에서 밀로 내려가게 된 이유는 바다를 통한 운송의 용이성과 빨갛은 부추때문이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려청자가 정부 주도하 관료로 생산됐으며, 정수사가 왕명으로 고급도에 있는 관광모를 관리, 지역세를 면제받았고 조선말까지 강진지역을 관장하는 수탈이었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어 고려청자의 발상지 정수사에 대한 학술적인 조명이 필요한 상태다.

신비의 달마도를 행운의 순금(99.9%)카드에..



▲ 앞면 달마도 ▲ 뒷면 반야심경

달마는 禪을 대표하는 인물로 깨달음을 상징하며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손꼽힌다. 또한 달마도는 TV 방송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신비의 달마도(眞)를 발간하여 수백을 차지하는 등 건강과 함께 부와 명예를 불러 주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에 착안하여 (주)한국 자연에서 신비의 기운 지닌 '달마도' 등을 행운의 '순금카드'에 새겨서 상품화(실용신안등록 No.2026호)했다. 천만부가 특별 보시 보급용으로 선보여 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순금카드의 앞면은 달마도의 대가 대한 용종우 선생의 원본 작품을 카드용 크기 (대형 5cm×7.5cm, 소형 3cm×5cm)에 새기고 뒷면에는 반야심경을 새겨 비닐압착공법으로써 벗어지지 않게 거칠없이 마감해 소지하기 쉽다.

수많은 불자들이 몰려 보시용으로 대량 주문시에는 가격 할인은 물론 앞면면에 원하는 사진, 그림, 글씨를 부치, 이름 등 어떠한 문양이나 색상도 크기에 관계없이 원본 그대로 제작 가능하다. 개인 소지용 및 선물용으로 최적이며 가격은 대형 20,000원, 소형 15,000원, 대소세트 구에서 특별 보시 가격으로 20% 할인된 28,000원에 판매한다.

부처님의 말씀과 신비의 달마도를
품안에 가까이...

전하주문 접수후 전국 어느곳이나 5일내 우편배달 가능하며 최고의 전신 달마도 순금 포구책(27cm×30cm)화한 액자 용도 한정 판매한다.

◎ 또한 대한 용종우선생님의 달마도 원본도 판매합니다.

순금판 열쇠고리 순금판 심번신 달마도 열쇠고리
1개 : 1만원, 3개(세트) : 2만원에 판매

※ 유사상품과는 다릅니다. (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제조판매처: 한국 자연씨 (24시간 공용일 접수가능)

◎ 구입문의 본사: 02)922-4804~5 ◎ 영점집 모집